LPG 사우디공세 초긴장

가격결정방식 바꿔 가격인상 강행 … 수입선 다변화 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LPG 수출가격방식이 10월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수급구조상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국내시장을 더욱 위협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 공급선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월부터 4개월동안 동남아사아에 대한 공급량을 20% 감축, C&F Japan 현물시장 가격을 93년동기대비 프로판 33달러, 부탄 48달러로 각각 올린데이어 10월부터는 가격결정 방식을 바꿔 현물위주의 전략으로 완전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같은 전략은 93년 계속된 유가하락으로 발생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중동위주의 공급선 편중으로 수급구조상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LPG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유가가 오르고 있는 현추세를 감안, 수입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Alamco는 대만,일본에 이어 7월초 한국을 방문, 호유에너지와 유공가스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가격인상을 위한 결정방식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현행 가격방식인 SP(Samarec Price)방식 가운데 GEP (Government Established Price)와 월간 현물입찰에 의한 낙찰 가격차이 반영기준인 톤당 15달러를 대폭 줄여 현물가격 요인을 더 반영하는 것과 GEP와 현물입찰 가격차이 반영률 50%를 크게 줄이는 안 등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lamco는 이 과정에서 『가격결정방식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량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94년 LPG 예상공급량 564만5000톤(프로판 353만톤, 부탄 211만톤) 가운데 수입은 프로판 312만톤, 부탄 111만톤 등 (공업용 포함) 모두 423만여톤으로 수입 의존율이 74%를 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강경전략으로 인한 타격이 나프타 등 경쟁원료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수입물량 423만톤 가운데에는 장기계약분이 유공가스 127만톤, 호유에너지 130 만톤 등 모두 257만여톤에 그쳐 나머지 166만여톤의 현물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계절별 수요격차에 적절히 대처키 위한 장기 구입방안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절기 수요 급추세를 겨냥, 3/4분기 이후 가격결정방식과 물량수급을 임의 조절,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물량감축으로 인한 가격폭등이 계속된 지난 4월과는 달리 6월들어 C&F Japan 가격은 여름철 비수현상과 공급량감축에 따른 재고물량누적 등으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 7월현재 프로판 톤당 145달러, 부탄 15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가격전략이 국내시장에 직접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10월 이전까지는 이같은 일시 정체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유공가스와 호유에너지 등 국내 LPG 수입기업들은 수급구조상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쪽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원거리 운송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4/8/29>